

# 제주 예술활동증명 발급 큰 폭 증가

2019년 547건, 작년 955건  
올 들어선 1209건으로 늘어  
문예재단 협·단체 참여 추진  
지정 시 행정심의 완료 간주  
내달 전담 직원 배치 계획도

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제  
주 지역 예술활동증명 발급 건수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는 547건  
이었지만 2020년 말엔 누적 건수가  
955건으로 무려 408건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 21일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1209건으로 3개월여  
사이에 254건에 대한 발급이 이뤄  
졌다.

제주문예재단에서도 제주문화예술  
지원 사업 접수 시 예술활동증명을 3  
년 내 실적 서류로 대체하는 등 예술  
활동증명이 기본 서류로 활용되면서  
발급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제주  
문예재단이 예술활동증명 온라인 신  
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시  
행하고 있는 대행서비스 건수를 보

면 2019년 11건에서 지난해에는 41  
건으로 뛰었다. 올해만 해도 3월 21  
일 현재 총 31건에 대한 대행서비스  
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제주문예재단은 한국예  
술인복지재단이 전국 광역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모집  
중인 예술활동증명 협력 협·단체 지  
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협력 협·단체  
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이 대행한 예  
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심의를 완료한 것  
으로 간주된다.

제주문예재단 측은 "예술활동증명  
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대행서비스  
를 진행할 때 1인당 1시간 넘게 걸리  
는 등 빠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  
며 "4월부터는 예술활동증명 대행서  
비스와 관련 전담 직원 1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 극단 가람 '종이비행기' 타고 전국 대회로

대한민국연극제 예선 겸한  
제26회 전국연극제 막 내려  
5개 극단 경연 '가람' 최우수  
첫 참가 '오이' 연출 등 3관왕  
전문 연극 아카데미 개설 필요



제주연극제 최우수상을 받은 극단 가람의 '종이비행기'. 7월 개막하는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대  
표로 참가할 작품이다. 사진-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 제공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티켓은 '종이  
비행기'를 공연한 극단 가람이 가져  
갔다. 지난 28일 막을 내린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예선을 겸한  
제26회 제주연극제 공연 결과다.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 주관으로  
지난 24~28일 5일 동안 문예회관에서  
서 펼쳐진 연극제에는 파노가리, 퍼  
포먼스단 몸짓, 예술공간 오이, 가람,  
세이레 등 5개 극단이 차례로 공연을  
벌였다. 역대 최다 극단이 무대에 올  
랐고 모두 장작극으로 승부했다.

심사는 정두영 한국연극협회 부이  
사장, 노하룡 김천가족연극제 추진위  
원장이 맡았다. 노하룡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출품작마다 회관에서  
주제 의식으로 귀결되는 서브 텍스  
트가 과장되거나 생략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또한 연기 하모니를 보  
여주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고 밝혔  
다. 반면 "탄탄한 연기력을 지닌 배  
우들과 다양한 공간적 연극 언어를  
사용한 연출 기법이 돋보이는 장면  
은 이 대회가 낳은 큰 수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문적인 연극 교육 기  
반이 취약한 제주의 현실을 타개하  
기 위해 향후 도내 극단 대상 아카데  
미 등 연극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을 고민할 때다. 극단  
끼리 경쟁을 넘어 '제주 연극 드림  
팀'으로 전국 무대에 도전하는 방안

도 필요해 보인다.  
심사 결과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가람이 차지하며 3년 연속 본선행을  
따냈다. 우수상은 '일곱 개의 단추'를  
공연한 예술공간 오이가 수상했다. 개  
인상 부문 연출상은 예술공간 오이의  
전혁준, 연기상은 퍼포먼스단 몸짓의  
홍진숙과 가람의 고가영, 신인 연기상  
은 예술공간 오이의 김수민과 가람의  
양진영이 각각 뽑혔다. 스태프상은 세  
이레가 받았다. 예술공간 오이는 연극  
제에 처음 참가해 단숨에 연출상, 신  
인 연기상, 단체 우수상에 오르며 저  
력을 드러냈다. 전선희기자

## 옛것과 새것 교차하는 시간의 색

서울 동덕아트갤러리 기획  
내일부터 오기영 초대전  
'도시-사라진 풍경' 주제

주성분으로 염료에 친숙하고 색을  
아주 잘 받아 낸다. 이때 종이에 스  
며든 염료는 훨씬 깊이 있고 맑은 색  
감을 전해준다.



오기영의 '도시-사라진 풍경 1'.

이 과정에서 바탕 재료인 유지를  
마련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쏟아 부  
었다. 유지는 장지에 들기름을 올리  
고 건조 후 풍습을 바른 뒤 장기간  
건조해 삭힌 밀가루를 끊어 풀로 배  
접하는 방식으로 탄생한다. 이를 토  
대로 작가는 겹겹이 쌓인 투명한 색  
채 뒤에 침전된 주조색이 드러나도  
록 이끈다.

오 작가는 "오늘날과 같은 페스트  
시대와 상반되는 장인의 원시적 고  
단함, 하나하나 담내를 묻혀 가는 작  
업에 구도적 의미를 담고 싶다"며

"더불어 전통적인 채색 기법과 '전  
사'라는 복제의 기법을 동시에 구사  
해 불연속적인 시간의 층을 교차시  
켜 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장에는 20여 점이 나온다. 이  
달 31일부터 4월 5일까지 동덕아트  
갤러리 B전시실. 전선희기자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는 화면을 꾸  
준히 빚어 온 제주 오기영 작가. 그  
가 우리 전통의 색을 탐색하며 2009  
년부터 최근까지 작업한 작품들이 서  
울 전시장에 나온다. 동덕아트갤러리  
가 마련한 기획 초대전을 통해서다.

'도시-사라진 풍경'이란 이름을  
단 이 전시에서 오 작가는 굵고, 짙  
고, 밝고, 색을 쌓아올리는 기법으  
로 작품을 제작한다. 전통채색 방식  
인 장지 채색기법이다. 장지는 닥이

제주문예재단 노조 성명서  
"이사장 게시판 가이드라인  
시대 역행 행태 공식 사과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문화예술재단지회(지회장 국혜  
원)는 29일 성명에서 "이승택 이사  
장이 지난 24일 문예재단 노동자 누  
구나 이용하는 자유게시판에 '가이  
드라인'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본인이 그간 대내외적으로 강조해  
온 '소통'은 말뿐이었음을 스스로 증  
명하였다"며 "의명도 아닌, 실명 자  
유게시판에 제재를 가한 것은 노동  
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를  
짓밟고, 본인이 불쾌하고 불편한 내  
용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  
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해 '특정  
인물이나 특정 팀에 답변을 요구하  
거나 평가를 하는 것은 재단의 화합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노동자의 자  
유의사 표현 방식을 폄하하는 것은  
지극히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덧붙  
였다.

재단 노조는 지난 3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고 29일 기준 노조 구성원 대상  
74명 중 41명이 가입되어 있다. 4월 중  
출범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최근 설립된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 노동조합이 이승택 이사장의  
소위 '게시판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  
해 첫 목소리를 냈다. 재단 노조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 4.3평화공원에 '시로 읽는 4.3 생애사'

제주작가회의 시화전  
4월 2일부터 6개월간  
전국 각지서 참여 70편

허영선 시인의 시 '범 앞에서' 따  
른 '거기, 꽃 피었습니까'란 이름을  
단 이번 시화전은 4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열린다. 출  
품작은 모두 70편으로 제주작가회의  
회원들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활발하  
게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도 함께한  
다. 4.3을 소재로 한 장편서사시 '한  
라산'을 발표해 옥고를 치렀던 이산  
하 시인이 처음으로 시화전에 참가  
하고 한국전쟁 전후 아픈 역사를 공  
유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시인들도

동참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짙은  
색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는 '시로 읽는 4.3생애사'를  
주제로 정했다. 4.3희생자와 유족,  
체형자들의 삶을 좀 더 깊숙이 들여  
다보기 위해 4.3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4.3이후 미제협 세대로서의 4  
·3에 대한 시선, 한국전쟁 전후 시기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공유하는 문학  
적 형상화에 초점을 두고 전시를 기  
획했다.

첫날 오전 11시 개막 행사는 참가  
인원을 최소화해 간소하게 치른다.  
시화전 출품작은 상반기 중 시선집  
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돌문화공원 문화가 있는 날  
비대면 동백 매듭 공예 체험

꽃인 동백꽃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  
하고 추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체험은 4.3을 다룬 영화 '지  
슬'의 군인 주둔지이자 지역민 학살  
장면의 촬영 장소였던 돌한마을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현장체험이  
불가한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  
으로 준비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날 돌문  
화공원을 방문해 '전통 매듭 동백매  
지 키트'를 수령한 후 인에당공방(대  
표 강문실)의 동영상 강의를 보며 체  
험을 하면 된다. 참가자에게 4.3평화  
재단에서 지원한 금속 배지도 별도로  
지원한다. 돌문화공원은 제작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  
과 돌문화공원 홈페이지, 인스타그  
램, 페이스북에 게시할 계획이다. 문  
의 710-7732.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돌문화공원이 4월 3일 '제73주  
년 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이달  
31일 3월 문화가 있는 날에 '내 가슴  
에 핀 동백꽃 한 송이' 동백 매듭 공  
예 체험 행사를 벌인다. 4.3사건을  
상징하며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현 상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동여성의용소방대  
대장 김정희 외 대원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강 봉 유**  
(건축사사무소 지성건축)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세화고등학교 건축사모임 회원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광령초등학교 총동창회  
제11대 회장**

**고 영 준**

광령초등학교 총동창회 제11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성골프동호회  
회장 김창희 외 회원일동**

**축 선**  
CONGRATULATIONS

**대한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지부장**

**백 민 형**  
(대궁갈비)

대한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지부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7천여 회원업소와 함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궁숯불갈비  
직원 일동**